

■ 니카라과 민중미술

박 병 규



알레한드로 베니토 카브레라, 〈방울새, 라파, 투칸〉

니카라과 ‘민중미술’은 마법처럼 대변에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1970년대 중반, 이런 그림을 처음 보았던 아르헨티나 작가 홀리오 코르타사르(Julio Cortázar)도 마찬가지였다.

소모사 정권이 니카라과에 드리운 어둠만큼이나 짙은 밤, 코르타사르는 에르네스토 카르데날을 따라서 니카라과 호수에 있는



로돌포 아레야노, 〈작은 섬〉

솔렌티나메 섬에 도착했다. 카르데날이 신앙공동체 사람들에게 가져온 물건을 꺼내주고 있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던 코르타사르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바로 구석지에 세워놓은 그림들이었다.

어떤 그림에는 서명이 있었고, 어떤 그림에는 서명이 없었지만 모두 너무나 아름다웠다. 세상의 첫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노래로 찬양하듯이 티 없이 맑은 시선으로 주변 풍경을 묘사한 그림이었다.

그랬다. 티 없이 맑은 세상. 바깥세상이 제아무리 칙흑같이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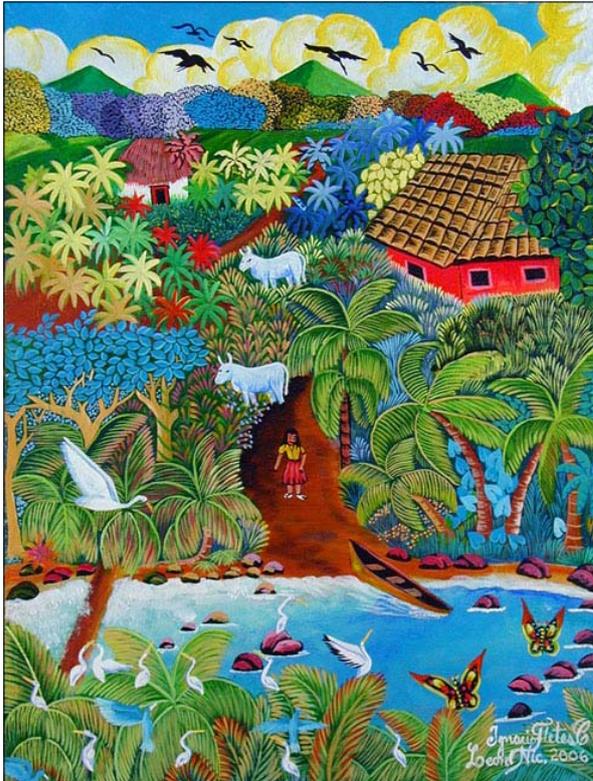


니카라과 호수에 위치한 솔렌티나메 섬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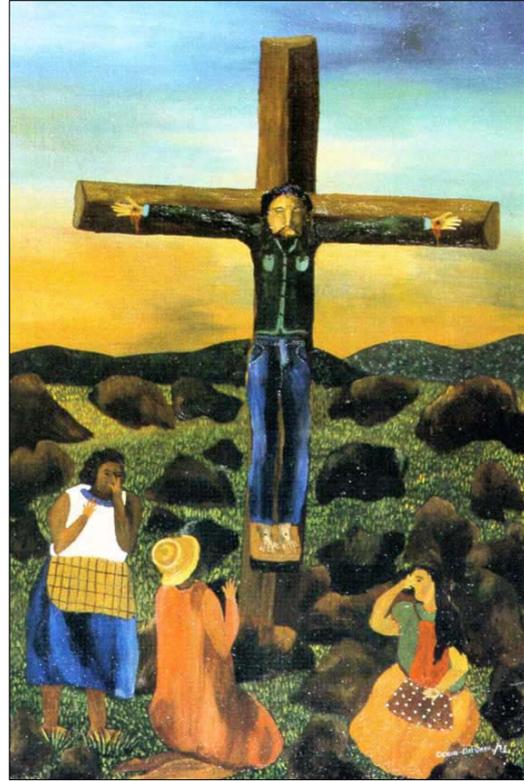
두워도 니카라과 민중은 눈이 아리게 맑은 세상을 꿈꾸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기에, 그런 꿈을 아직도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을 순박하게 여긴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원시주의(Primitivism)라고 부른다.

니카라과의 민중미술을 세상에 알린 사람은 앞서 언급했듯이 시인이자 해방신학자인 에르네스토 카르데날(Ernesto Cardenal)이었다. 1960년대 말 우연히 이 섬에 들른 카르데날은 컵을 그리고 있는 주민의 솜씨에 감탄해서 종이와 색연필을 주었다.

그 후, 이 섬에 ‘신앙 공동체’를 세운 카르데날은 니카라과의 유명한 화가 로헤르 페레스 데 라 로차(Roger Pérez de la Rocha)를 초빙하여 테크닉을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1974년 무렵이면 이 섬의 주민들(농부와 어부)이 일상 풍경을 그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이른바 니카라과 민중미술의 르네상스가 시



호세 이그나시오 플레테스, <농장>



글로리아 게바라, <게릴라 그리스도>

작된 것이다.

농민과 어부가 생업을 제쳐두고 그림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그림이 국제적인 유명세를 얻고 마나과, 뉴욕, 파리의 갤러리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사실, 민중미술이란 민중이 일상적인 활동으로 표현하고 또 공유하는 미술을 일컫는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된 지금, 상품의 수요와 공급의 메커니즘에서 자유로운 영역은 거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상업성과 대중성은 우리 시대 민중미술이 좋든 싫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역이 되었고, 니카라과 민중미술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른 한편으로 니카라과 민중미술은 고도의 정치적 성향을 띠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성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에르네스토 카르데날의 영향이라고 넌지시 비추기도 한다. 아니라고 딱 잘라



마나과 소재의 '바타올라 노르테 문화센터' 벽화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데이비드 크레이븐(David Craven)의 분석처럼 억압 속에서 살아온 민중들의 사고와 세계의 복원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하는 편이 더욱 타당할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민중들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종적 압제구조의 철폐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것이다. 회화의 기본적인 테크닉이 좀 어설프면 어떠하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소박한 생각을 드러내면 그만인 것을. 이처럼 이것저것 앞뒤를 재지 않는다는 점에서 니카라과의 민중미술은 다시 한 번 나이브하다.

악명 높은 소모사 독재 권력은 정권 말기인 1977년 솔렌티나

메를 철저히 파괴했다. 신앙공동체는 무너지고, 에르네스토 카르데날은 이웃 나라로 망명해야만 했다. 이런 풍파 속에서도 솔렌티나메에서 시작된 니카라과의 민중미술은 산티니스타 집권기에 마나과 건물의 벽을 화폭으로 삼아 장려하게 부활하였고, 민중들의 열망으로 충전된 다채로운 메시지를 세계라는 공간과 역사라는 시간 속에 새겨놓았다.□

참고 서적 및 웹 사이트

Cortázar, Julio. 1976. "Apocalipsis de Solentiname". en *Alguien anda por ahí*.

Cardenal, Ernesto. 1983. *Tocar el cielo*. Managua: Editorial Nueva Nicaragua-Ediciones Monimbo.

Craven, David. 1989. *Latin American Studies*, Vol. 1. Lewiston, NY: Edwin Mellon Press.

<http://www.indigoarts.com>

<http://dc37.dawsoncollege.qc.ca>

<http://www.nicaartgallery.com>

<http://www.liberationtheology.org>

박병규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책임연구원이며, 역서로는 『불의 기억』, 『파블로 네루다 - 사랑하고 노래하고 투쟁하다』 등이 있다.
